

# 漢字 字素의 형성과 분류의 通時的 고찰

朴 錫 弘\*

---

◁ 목 차 ▷

---

- I. 緒言
  - II. 기존의 한자 구성요소 분류의 재검토
  - III. 자소의 형성 방식
  - IV. 자소의 운용과 활용
  - V. 자소의 분류와 명명
  - VI. 結語
- 

## I. 緒言

한 언어의 문자체계(Writing System)는 음성언어를 대체하는 제2언어이며 개별 문자는 문자언어<sup>1)</sup> 상의 최소의 독립적 운용단위이다. 문자는 표시대상 및 기능에 따라 표음문자와 표의문자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중국어의 서사체계인 한자는 표의 또는 표음의 기능으로 단음절어라는 중국어의 언어적 속성에 적절히 부합하여 왔다. 이를 위해 한자는 단독 혹은 다른 부호나<sup>2)</sup> 기호와 의<sup>3)</sup> 결합에 의해 일정한 형체를 구성하였는데, 이로써 한자 형체 구성의 가장 기

---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 1) 문자언어는 음성언어의 상대적 개념이다. 음성언어를 언어의 제1차적 형태로 보았을 때, 문자는 음성언어를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정보의 저장에 따른 시공의 제약 극복 등은 음성언어가 가질 수 없는 문자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자는 음성언어와 구별해서 문자언어 나름의 독자성과 기능에 근거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2) 본고에서의 부호(code)는 변별적 특성과 기능을 가진 가시적 신호체계로서의 부호를 가리킨다. 음성언어체계가 하나의 부호체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체계는 문자라는 개별 부호의 총집이다. 부호는 다른 부호와 조합에 의해 또 다른 개별 부호가 되기도 한다.
- 3) 본고에서의 기호(sign)는 부호와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기호는 표의 기능을 보

본적인 단위, 즉 字素에 대한 연구는 문자 본연의 연구뿐만 아니라 음운·의미 등 중국어의 언어 요소와 그 특징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자소 분석은 한자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론적 토대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소는 한자의 形義 분석에서부터 한자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자 자소에 대해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일련의 연구에서는 자소를 형식·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고, 그 결과 한자학·자소론 등 관련 연구에 참고적 가치를 지니는 연구 성과들이 속속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자소 분류가 한자의 생성 및 변화 역사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자 형체 구성요소의 단편적인 해체와 분류에 치우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자를 제작하고 변화시켰던 고대 言衆의<sup>4)</sup> 造字 및 사용 과정에 역점을 두어, 또 자소의 형성과 실제 운용 및 활용에 근거하여 자소의 유형화에 관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자소론과 일반문자학 이론을 참고하고 중국 고대한자 자료들을 논거로 삼아<sup>5)</sup> 한자의 형체 변화<sup>6)</sup> 법칙에 적절히 부합할 수 있는 한자 자소 분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본고의 기술 과정에서는 한자 자소와 관련한 중국식 개념의 무비판적 수용보다는 우리말 습관에 익숙한 전문 용어의 명명 및 정의에 노력함으로써 우리식 자소 연구 방법론 정립의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조하는 점이나 선을 의미한다. 부호와 아울러 설명하자면, 가령 ‘本’에서의 ‘木’은 부호이고 ‘一’은 기호인데, 이때의 조합형태는 ‘부호(木)+기호(-)’이다.

- 4) 본고에서의 ‘言衆’은 음성언어뿐만 아니라 문자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문자 사용인을 의미한다.
- 5) 알파벳 문자체계에 근거한 앞의 자소의 정의에 근거하자면, 자소는 개별 음소와 대응하는 개별 부호들과 그 집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중국어와 다른 언어체계를 가지는 언어의 음소 개념을 한자에 기계적으로 대입하여 한자의 자소 개념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자 역시 중국어라는 개별 언어를 표시하는 서자체계이므로, 한자가 표시하는 대상에 근거하여 자소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 6) 본고에서 일컫는 ‘한자 형체 변화’ 중의 ‘변화’는 한자의 형체·구조상의 변화 및 발전, 그리고 문자체계로서의 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II. 기존의 한자 구성요소 분류의 재검토

한자의 구성요소<sup>7)</sup>에 대한 분류는 일찍이 『설문』을 비롯한 고대의 문자·음운서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전통 한자학에서의 六書 연구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다만 이 연구들은 聲符·義符 등과 같이 한자가 내포하는 언어요소와 관련한 음운·의미의 대략적 카테고리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한자 구성요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과 분류는 李圃(1993)에 의해서이다.<sup>8)</sup> 그는 갑골문 造字 요소에 주의하면서 대체적으로 다음(李圃, 1995:9)과 같이 각 자소를 분류하고 명명한 바 있다.

- (1) 자소는 조자 기능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조자 기능이 있는 자소와 그렇지 않은 자소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sup>9)</sup>
- (2) 조자 과정 중의 구조적 층위와 조합관계 측면에서 자소를 隱性字素와 活性字素로 나눌 수 있다.

- 
- 7) 여기에서의 '요소'란 한자 구성 성분에 있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성분'이란 의미를 함께 가진다. 비슷한 말로 '성분'이 있겠으나 이것은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의 한 부분'이라는 비교적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특히 언어학에서는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와 같이 주로 구문론에 관련한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자 구성 성분 중 최소 단위를 지칭할 때에는 '성분' 대신 '요소'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 8) 李圃(1995:9)는 字素와 字綴을 한자 조자의 두 가지 주요 구성성분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의 이 주장은 이들 양자가 한자 구성에 있어 마치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있다. 사실 字綴은 한자 조자상 실질적 독립적 지위가 있는 자소와는 달리, 기존의 한자에 의미적 변별을 위해 부가한 기호이고, 의미와 관련한 고정적인 형태 패턴이 없는 등, 자소에 비해 의미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조자의 구성성분'에 관한 기술에 있어 이들 양자를 병립시키는 것은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더불어, 字綴이란 용어는 우리말 습관에 익숙지 않으므로 이를 '부가기호'로 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 9) 李圃(1995:13)는 이들 두 유형의 자소를 갑골문 조자의 '기본자소'로 총칭한 바 있다. 여기에서의 '기본자소'는 한자, 특히 갑골문자 체계 구성에 기본이 되는 자소라는 개괄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2언어로서 운용 가능한 자소의 형태 및 기능적 특징에 따라 기본자소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 표시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이 되는 '기본자소'라는 개념이 설정되었다면, 이것이 중국어라는 언어를 실제로 어떻게 서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는 한자의 형체 구조에 대한 '정태분석'을<sup>10)</sup> 통해 한자의 자소를 독립적 조자 가능 여부에 따라 (1)의 두 가지 자소로 분류하였는데, (1)의 분류는 조자 능력에 따른 자소의 분류라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참고의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에서는 실제 조자 과정에서 자소로 사용된 부호들의 분류와, 또 이들의 독립적 혹은 그렇지 않은 조자 능력이 한자의 조자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한자 구성요소로서의 자소가 한자 조자 과정 중에서 어떠한 지위로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소 중심의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2)에서는 자소를 '隱性字素'와 '活性字素'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 두 자소의 독립적 관계는 '複素字'에<sup>11)</sup> 대한 '動態的描寫'와 이를 통한 한자의 구조 관계와 구조 층위 분석의 결과이다. 李圃는 이 분석을 통해, 원래의 은성자소의 결합체가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부호와 결합하면 이 은성자소들을 독립적 지위를 상실하고 임시조합에 의한 활성자소가 된다고 보았다. 그가 논거로 제시한 갑골문 '征'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征'의 원래 형체인 '𠄎(正:甲3355)'을 구성하는 '口'과 '止'는 모두 은성자소였으나, '𠄎(征:存下848)'과 같이 '彳'가 추가되면서 '口'과 '止'의 조합체인 '正'은 독립성을 상실한 임시조합체로서의 '활성자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 분석은 한자 형체·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언어요소의 반영 과정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과이다. 즉, '征'의 형체 변화 과정에서는, '征'의 표의상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여전히 '正'이고 독립적 지위 또한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나중에 부가된 '彳'가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부차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문자의 생성·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이처럼 소위 '활성자소'는 오히려 字義의<sup>12)</sup> 근간인 경우가 빈번하고, 나중에 부가되는 다른 자소는 해당 자의를 의미범주별로 유형화 하는 일종의 한정부호(determinative)적 성질을 띠는 경우가 많다.<sup>13)</sup> 따라서 활성자소·의미자소의 구분은 비록 한자 구성요소의 결합 관계 분

10) 원문은 '靜態離析'으로, 李圃(1995:30)는 이를 '平面分析'으로 달리 표현하기도 했다

11) 李圃는 둘 이상의 자소로 구성된 문자를 複素字, 하나의 자소로 구성된 문자를 獨素字라 칭하였다(1995:11).

12) 본고에서의 '字義'는 형태소 또는 단어의 서사형식인 漢字가 가지는 의미를 가리킨다.

13) 예를 들어, '或'은 나중에 '土'와 '匚'가 부가되어 '域'·'國'자가 되었지만, 한자 형체 변화 과정에 측면에서 보았을 때 '或'은 여전히 '域'·'國'자의 표의상 핵심 요소이며, '土'·

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소 분류라는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조자된 결과만을 가지고 자소를 은성자소와 활성자소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한자 형체 변화 역사와 당시 언중의 문자언어 사용의 실제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최근의 자소 연구 중 孔祥卿·史建偉·孫易(2006:76~77)도 자소에 대해 일련의 분석을 가한 바 있는데, 이들은 자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3) 形音 또는 形義 결합의 문자 구성 최소단위를 基本字素라 하고, 기본자소의 파생이나 조합에 의해 새로운 문자 생성에 참여한 자소를 複合字素라 한다.

(4) 자소는 기능에 따라 形素·義素·聲素로 나눌 수 있다.

孔祥卿 등은 자소를 구조별·기능별로 분류하면서, (3)과 같이 자소를 ‘기본자소’와 ‘복합자소’로 나누고 있지만 이들의 단독·변형·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한자를 ‘單素字’·‘派生字’·‘合素字’만 정의하고 있어서, 자소에 의해 형성되는 한자의 유형을 지극히 단순화 한 경향이 있다. 또 ‘복합자소’가 다시 몇 개의 최소단위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이를 하나의 자소로 여기는 것은 앞의 ‘문자 구성 최소단위를 기본자소’라는 정의에 모순된다. 그리고 (4)에서의 형소·의소·성소는 한자를 구성하는 자소들이 각각 어떤 언어요소를 표시하는가 하는 자소의 기능적 측면에 근거하여 자소를 분류하였지만, 이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자소의 분류 및 명명이 한자형·음·의에 대한 전통적 분석방법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sup>14)</sup>

전술한 두 가지의 자소 분류는 자소의 생성 및 실제 사용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결여된 채, 한자 형체 분석 결과에 따른 자소의 단편적 결합 관계와 기능적 측면에 대한 기술에만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한자의 생성·변화의 역사적 규율에 잘 부합할 수 있고, 고대 언중의 조자 의도와 문자사용의 실제에 적절히 부합할 수 있는 자소의 분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소로 사용된 부호의 생성 및 변화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자소체계 형성 이후 조자 과정에 간여

‘口’은 각 문자의 의미범주를 구별하는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4) 이들 두 견해는 모두 ‘造字法’ 또는 ‘構字法’에 의해 만들어진 한자에 대한 형체 구조 분석 중에 제기된 것이어서, 자소에 대한 전문적 분석은 모두 결여되어 있다.

하는 자소의 언어요소 표시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Ⅲ. 자소의 형성 방식

초기의 한자를 사용하였던 당시 언중들은 前文字<sup>15)</sup> 단계의 부호보다 간략화 되고 상징화 된 서사형식으로써 사회 생산이나 생활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sup>16)</sup> 나타내었다. 이때의 한자들은 일련의 형체 변화 과정을 거쳐 독체자 및 합체자의 기본 구성요소인 자소 형성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자소에 대한 연구는 한자의 생성에 관한 연구임과 동시에 한자 형체의 변화 과정, 한자 구조의 발전 역사, 한자 구성요소의 의미·기능별 유형화 등의 기술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한자 자소론 및 구조 분석 관련 이론,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 한자 연구 성과를 참고로 하여, 자소 형성의 관점에서 초기 한자 생성의 방식과 과정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해 보았다.<sup>17)</sup>

#### 1. 개념의 순수기호화

문자 창제의 원동력은 사회 생산력 발전에 따른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잉여생산물의 상업 거래는 수의 표기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여 숫자와 관련한 부호가 생겨났다. 갑골문에서의 숫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갑골문의 ‘一(粹196)’·‘二(甲540)’·‘三(前1·7·2)’ 등의 숫자는 특정 사물의 형체를 본뜬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량과 관련한 개념만을 나타내었다. 또 방위와 관련한 개념 역시 단순한 기

15) 前文字는 非文字와 文字의 과도기적 단계의 각종 부호를 가리킨다. 중국 문자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前文字의 예로는 商周 청동기 상의 族徽가 있다. 이것은 갑골문에 비해 후대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물의 용도에 따른 부호의 보수성으로 인해 그림문 자적 성질을 보존하고 있어서 초기 한자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16) 여기서의 ‘개념’은 표시 대상에 대한 일종의 心象(mental image)이자 표시 대상의 속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리킨다.

17) 한자의 형체 구조 및 역사에 관한 보다 세밀한 기술을 위해서는 기존의 육서에서 파생된 각종 한자 구조론에서 더 나아가, 자소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호로 나타낸 예로서, 한자의 ‘ㄷ(上:前7·32·4)’·‘ㄹ(下:粹79)’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부호 중의 긴 가로획은 위·아래를 경계 짓는 기준선에 불과하고, 이것의 위·아래에 부가되는 짧은 획 역시 단지 위치만을 가리키는 기호일 뿐이다. 이와 같이 형체와 의미 간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단순한 형체의 획을 ‘순수기호’라 할 수 있다. 육서 중 지사에 사용된 ‘지사부호’가 순수기호의 대표적인 예로서, 숫자·방위 등과 관련한 부호는 바로 순수기호를 이용하여 개념을 나타낸 것들이다.

순수기호로 개념을 나타내는 방식의 부호는 구체적 사물을 형상화한 상형문자에 비해 생성 시기가 오히려 이르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다만 이들 문자는 문자 생성 초기의 전체 문자 중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사물의 형상화 방식으로 생성된 한자들의 기원 문제와 동일한 비중으로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문자들이 당시 언중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일련의 개념의 표시에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초기 한자의 중요한 일부분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 2. 객관사물의 형상화

세계 문자의 생성 과정을 볼 때, 대부분의 문자는 최초 형태가 객관 사물을 형상화 한 단독의 부호였고 한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sup>19)</sup> 이렇게 생성된 부호는 사물의 형상을 본뜬 형체가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과 직결되도록 구상한 것과, 형체를 통해 유추될 수 있는 관련 개념을 표시한 것 등의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를 ‘직관적 형상화’, 그리고 후자를 ‘논리적 형상화’라 할 수 있다.<sup>20)</sup> 독체상형

18) 許慎이 육서에 있어 지사를 상형보다 앞에 배치한 것도 바로 이러한 문자 발생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戴侗 역시 『六書故』에서 지사를 육서 배열의 맨 앞에 위치시킨 바 있다.

19) 班固의 『漢書·藝文志』, 鄭衆의 『周禮·解詁』, 顧野王之 『玉篇』, 陳彭年の 『唐韻』, 張有의 『復古編』, 鄭樵의 『通志·六書略』 등과 같이 전통한자학에서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상형을 육서 중 맨 앞에 배열한 것도 한자의 최초 형태를 상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0) ‘직관’은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논리’는 ‘사물끼리의 범칙적인 연관’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직관적’ 또는 ‘논리적’이라는 상호 대립되는 이 두 가지 개념은 문자 제작뿐만 아니라 부호 해독의 주체인 언중의 의식 작용에도 적용된다.

자들이 전자에 해당하는 예로서<sup>21)</sup>, 가령, ‘𡵓(山:甲3642)’은 ‘산’이라는 객관사물에 착안하여 그 모습을 직관적으로 형상화해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후자 역시 객관사물의 형상화를 통해 개념을 나타낸 것이지만, 형상화된 부호의 형체는 개념과 일대일 대응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사물과 개념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통해 자의를 유추하도록 한 방식이다.<sup>22)</sup> 예를 들어 ‘𡵓(大:後上5·1)’는 사람의 직립 모습과 ‘크다’라는 의미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에 착안하여 ‘크다’라는 개념을 표시한 것이다.

### 3. 기호의 첨가

고대의 언중들은 새로운 개념을 표시하기 위해 기존의 부호와 상이한 형체의 부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 이외에도, 형체와 의미가 이미 널리 알려진 범용의 부호를 기본 소재로 삼아 여기에 표의 기호를 첨가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이 방식에 사용된 각종 기호를 ‘지시기호(Indicating Sign)’로<sup>23)</sup> 통칭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일종의 의미 특지 혹은 의미 변별과 관련한 힌트만을 제공한다.<sup>24)</sup> 지시기호는 ‘특지기호(Indicatory Sign)’와 ‘변별기호(Distinctive Sign)’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특지기호는 기존 부호상의 특정 위치를 지정하거나 지향하는 표의성 보조 기호로서, 이것이 가리키는 지점이 곧 해당 부호의 의미이다. 특지기호를 첨가하여 개념 표시를 한 예로는 육서 중 指事符號를 첨가하여 만들어진 指事字들이 있다. 예를 들어 ‘𠂇(亦:甲2406)’·‘𠂈(刃:前4·51·1)’은 기존의 ‘大’·‘刀’에 짧은 획이나 점·삐침 등의 필형을 가진 특지기호를 부가한 것이다. 이들 기호들은 형체의 異同 이 존재하지만 의미에 따른 유형화는 가능하지 않다.

다음으로, 변별기호는 부호 간의 의미변별을 위한 기호로서, 전술의 특지기호가

21) 唐蘭(2001:66)의 三書 중 象形字가 모두 이 예에 해당한다.

22) 이것은 일종의 개념기호(ideogram)의 성질을 띤다.

23) 여기에서의 ‘지시기호’는 이것의 형체적 측면과 기능적 특징에 비취볼 때 보조표의기호인 ‘字綴’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이것의 부가 대상이 되는 기존문자는 ‘字根’이라 칭할 수 있다.

24) 앞의 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李圃는 한자 조자의 두 가지 구성성분으로 字根과 字綴을 들고 있으나, 字根과 字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한자는 이 ‘기호의 첨가’와 관련한 전체 문자들 중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자 조자 성분을 언급하면서 이들 둘을 대등한 결합관계로 여기는 것은 문자 조자의 일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존 부호의 특정 지점과 관련한 의미 표시에 일조하는 것과는 달리, 변별기호는 해당 부호의 임의의 지점에 짧은 획이나 점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포함하지 않는 문자와의 형체 변별을 통한 의미의 변별을 목적으로 하는 기호이다. 전통적으로 ‘구별 부호’로 부르는 것이 이 예에 속하는데, 가령 ‘)(’(月:菁5·1)과 ‘ㄷ’(夕:菁2), 그리고 후대의 ‘王’과 ‘玉’은 변별기호 ‘丶’의 유무에 따라 두 부호 간의 의미를 변별하였다.

#### 4. 원형의 조작

표의문자에서는 범용성을 가지는 기존 부호의 형체를 변형하여 모종의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부호의 원래 형체를 변화시키는 표의 방식을 ‘원형의 조작’이라 일컬을 수 있다. 이 방식은 앞의 3.3처럼 기존 부호의 형체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지시기호와 같은 표의성 보조기호를 첨가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원형의 조작에는 ‘형체의 생략’, ‘형체의 변형’, ‘방향의 변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먼저, ‘형체의 생략’은 기존 형체의 일정 부분을 생략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 개념을 나타내는 조작이다. 예를 들면, ‘ㄱ’(丘:佚733)·‘ㄴ’(木:古文)<sup>25)</sup> 등은 ‘山’·‘木’의 형체 일부를 생략하여 나머지 부분으로 각각의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었다. 또한 ‘형체의 변형’은 기존 부호의 형체 일부분에 굴곡을 가하거나 기타의 필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가령 ‘ㄷ’(天:後下4·13)·‘ㄹ’(矢:前1·48·3)는 원래의 ‘大’ 중에서 두 팔 또는 머리 부분의 형체에 변화를 주어 해당 의미를 나타낸 예이다. 그리고 ‘방향의 변화’는 형체 전체 또는 일부의 방향을 달리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가령 ‘ㄱ’(前:前6·40·5)은 ‘大’의 형체 전체의 방향을 변화시켜 ‘逆’의 의미를 나타낸 예이고, ‘ㄷ’(无)<sup>26)</sup> ‘ㄹ’(欠:甲3729)의 일부의 방향을 변화시켜 상이한 개념을 나타낸 예이다.

25) ‘ㄱ’의 初文이다. ‘ㄱ’은 『說文·木部』에 ‘伐木餘’로 풀이한 문자이며 ‘ㄱ’ 또는 ‘ㄱ’로 쓰기도 한다.

26) ‘ㄷ’(既:鐵161·1)의 편방으로 사용된 자소이다.

## 5. 형체의 상징화

‘형체의 상징화’란 객관사물의 형체를 최소한의 필획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ㄷ(ㄷ)’·‘ㄱ(ㄱ)’·‘ㄴ(ㄴ)’<sup>27)</sup> 등과 같이 사물 전체를 대략적인 윤곽만으로 나타낸 것과, ‘夫(夫:前5·32·1)’ 등에서의 ‘-’처럼 특정 부분만을 기호 형식으로<sup>28)</sup> 상징화 한 것이 있다. 전자에 속하는 부호들의 초기 형체는 다른 상형문자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具象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여타의 부호들에 비해 매우 높은 범용성으로 인해 구상적 형상에서 일찌감치 탈피하여 상징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호는 3.3의 지시기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획이 복잡하고, 형체와 의미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제한적이거나 의미에 따른 유형화가 가능하다.

후자에 포함된 상징기호는 형체가 구상적이지는 못하지만 부호의 의미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을 3.3의 특지기호와 비교해 보면, 특지기호 그 자체는 의미와 관계없는 단순한 추상의 기호인 것과는 달리, ‘형체의 상징화’ 중의 이 기호는 사물의 형상을 극도로 간략화 한 형태로<sup>29)</sup> 해당 부호가 표시하는 개념과 직접적 관련성의 있으며, 3.2의 객관사물을 형상화한 부호만큼이나 한자의 의미 형성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였다.

## 6. 형체의 변이

‘형체의 변이’<sup>30)</sup> 특정의 서사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부호의 필획을 간략화 하거나 필형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로 제한된 서사경계 내에서의 공간적 균형미의 추구하고 서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의미범주를 나타내기 위한 전용

27) ‘ㄷ’·‘ㄱ’·‘ㄴ’은 각각 ‘𠄎(名:珠34)’·‘𠄎(率:甲392)’·‘𠄎(牡:前)1·29·5)’ 중에 사용된 ‘형체의 상징화’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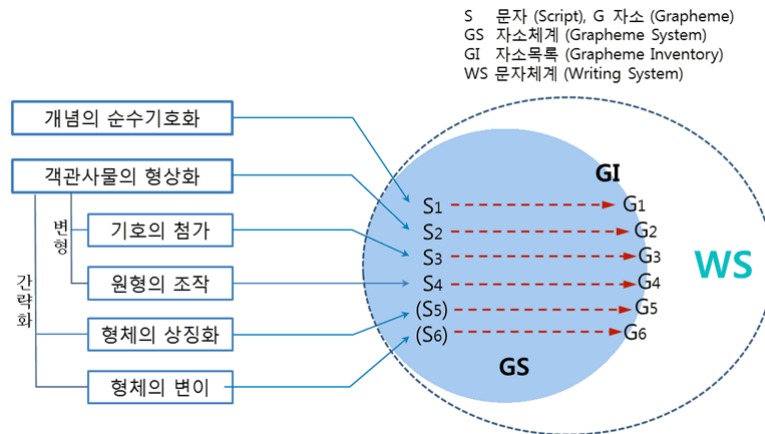
28) ‘夫’ 중에서 ‘비녀’를 나타내는 ‘-’는 특정 사물을 상징화 한 것으로, 이들 기호가 나타낸 것이 어떤 사물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유추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호를 ‘상징기호’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3.3에서의 ‘지시기호’와는 달리 분명한 표의성을 띤다.

29) 이것은 낱말기호(logogram)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30) 일반문자학에서의 ‘변이’는 알파벳의 대·소문자 간의 형체 차이와 같은 ‘변이자형(allograph)’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의 편방자가 이 예에 속한다.<sup>31)</sup> 이처럼 변이에 의한 부호는 간략화의 결과이므로 원래 형체와는 긴밀한 외형적 연관성이 있고 音·義 역시 같기 때문에 異體의 관계로서 두 형체가 공시적으로 함께 사용되었다. 3.5의 상징기호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변이에 의한 부호들은 형체만 간략화 되었을 뿐이므로, 표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변이되지 않은 원형의 부호들과 대등하게 해당 한자의 표의에 적극적으로 간여하면서 현대 한자에까지 이르고 있다.

전술의 여섯 가지 방식에 의해 생성된 표의의 부호들은 생성 초기 단계부터 특정의 개념을 나타내는 문자로 사용되거나, 다른 문자나 부호들과 결합하여 한자의 중요 구성성분으로서 의미 표시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였다. 일정의 형체와 의미를 가지는 문자 구성상의 최소성분, 또 문자 생성에 있어 기본 재료이자 조자의 기본요소를 자소라 할 수 있는데<sup>32)</sup>, 앞의 방식들에 의해 형성된 부호들은 문자임과 동시에 자소의 지위를 함께 가지면서 한자라는 문자체계 형성의 근간이 되었다. 이상 여섯 가지의 자소 형성 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내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자소의 형성 방식과 과정

31) 小篆에서는 원칙적으로 변이 부호의 서사를 허용치 않았으나, 隸變 과정 중 형체 분화의 결과로 다량의 변이 부호가 출현하게 되었다.

32) ‘字素’에서의 ‘素’는 곧 조자 素材의 ‘素’임과 동시에 구성 要素의 ‘素’라 할 수 있다.

앞의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소 형성의 여섯 가지 방식은 ‘개념의 순수기호화’와 ‘객관사물의 형상화’의 두 유형으로 귀결할 수 있다. 이들 방식은 여러 형태의 자소 생성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으며, 특히 ‘객관사물의 형상화’ 방식의 자소는 형태의 변형을 통한 ‘기호의 첨가’와 ‘원형의 조작’, 그리고 간략화에 의한 ‘형태의 상징화’와 ‘형태의 변이’ 등 다양한 자소 형성 방식의 근간이 되었다.

전술의 여섯 가지 방식으로 형성된 자소들은 그 형성 방식의 명명에 상응하여 각각 순수기호자소[G1]·상형자소[G2]·기호첨가자소[G3]·변형자소[G4]·상징자소[G5]·변이자소[G6] 등으로 칭할 수 있겠다.<sup>33)</sup> 이렇게 생성된 자소들은 개념 표시를 위한 문자[S1~S4] 또는 표의 부호[S5~S6]로서 문자의 구성요소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수량이 점차 새로운 개념의 표시에 충분할 만큼 축적됨으로써 한자의 자소체계[GS]를 형성하고 일련의 자소목록을[GI]<sup>34)</sup>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한자의 자소체계는 언중의 언어·문자적 수요에 따라 한자를 지속적으로 생성해 나갈 수 있는 한자 조자의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였고, 이로써 언어를 서사할 수 있는 충분한 문자량을<sup>35)</sup> 확보함으로써 한자라는 하나의 문자체계[WS]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33) 다음 내용 기술의 편의를 위해 먼저 자소 형성 방식에 의한 각 자소를 명명 및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순수기호자소’는 형태·의미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순수기호로 개념을 나타내는 자소이다. ② ‘상형자소’는 객관사물의 형상화를 통해 생성된 자소이다. ③ ‘기호첨가자소’는 상형자소에 기호가 첨가된 형식의 자소이다. ④ ‘변형자소’는 기존 문자의 형태 일부를 생략하거나 방향을 달리하여 자의를 나타내기 위한 자소이다. ⑤ ‘상징자소’는 형태와 의미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으나 형태가 과도하게 간략화된 非具象의 상징적 기호 형태의 자소이다. ⑥ ‘변이자소’는 특정의 결합 조건에서 원래의 형태와 상이한 다른 형태로 다른 자소와 결합하는 자소이다.

34) Dürscheid(2007:211)는 독일어 음소에 대응하는 자소의 총집을 독일어의 자소목록(Grapheminventar)이라 칭한 바 있는데, 한자의 자소목록(grapheme inventory)은 조자에 사용 가능한 모든 개별 자소와 이들 자소들이 가지는 음운·의미·형태 등 언어·문자적 정보의 총집합체를 의미한다.

35) 문자량은 ‘字量’, 즉 언어 표시에 이용 가능한 문자의 총수량을 의미한다. 문자량의 비약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소량은 증가의 규모나 속도가 점차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앞의 자소 형성 방식에 따라 충분한 자소량이 이미 확보되어 기존의 자소 또는 문자를 이용해 개념을 표시하는 다양한 방식이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 IV. 자소의 운용과 활용

사회 생산력의 발전과 언중의 문자수요 증대에 비례하여 문자 역시 그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런데 표의문자 체계에서 사물-의미-형체<sup>36)</sup> 삼자 간의 일치 관계에만 근거하여 문자를 만들게 되면 문자의 수를 무한정 늘려 문자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또한 추상의 개념을 가시적 형체로서 나타내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문자 사용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체계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복잡한 형체나 구조의 문자가 언중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음에도 머지않아 결국은 도태되었던 한자 역사 과정 중의 여러 사례를<sup>37)</sup>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대의 언중들은 기존의 부호들을 이용하여 새롭게 생겨난 기존의 개념을 표시함으로써 증가하는 문자 수요에 부응하였다. 이때 이용된 부호들은 자소의 지위로서 단독 혹은 다른 부호와의 결합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는 문자의 표의 및 표음에 간여하였다. 이와 같은 자소의 이용 형태는 다음과 같이 ‘운용’과 ‘활용’의 두 가지로 정의 및 분류할 수 있다.

### 1. 자소의 運用

‘자소의 운용’이란 자의를 표시하기 위해 자소목록에서 해당 자소를 추출하여 표의 기능을 수행케 하는 것을 가리킨다.<sup>38)</sup> 이때의 ‘운용’은 표의를 위해 만들어진

36) 의미론에서는 말(상징:symbol)과 사물(지시물:referent)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김방한1992:149), 표의문자, 특히 상형문자는 사물을 형상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종의 상징으로서의 문자(형체)와 현실의 객관 사물, 그리고 의미(지시:reference) 간에는 모두 직접적 혹은 일정 정도의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37) ‘虹’과 ‘法’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虹’은 갑골문에서 𩇛(前7·7·1)과 같이 형체가 비교적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서사 습관에도 잘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小篆 시기부터는 이미 ‘虫’과 ‘工’을 각각 義符와 聲符로 취한 형성자로 대체되었다. 또한 ‘法’은 금문에서 灋(灋:克鼎)으로 썼으나 ‘水’와 ‘去’를 편방으로 하는 간략화 된 형체(『說文』或體)의 ‘法’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38) 본고에서의 ‘운용’은 본질적인 의미나 기능이 변화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구성의 한 요소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소들을 어떤 변용이나 활용 없이 조자의 원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소의 운용은 자소로 충당되는 부호가 자소 본연의 표의적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自立運用’과 ‘依存運用’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自立運用

자소의 ‘自立運用’은, 자소를 단독의 문자로 운용하거나, 혹은 문자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적극적인 표의 기능을 수행케 하는 것이다. 전술의 자소들 중에서 순수기호자소·상형자소·기호첨가자소·변형자소가 바로 자립운용이 가능한 자소들의 대표적인 예이다. 자소의 자립운용에 의해 만들어진 한자 중 상형자와 지사자는 자소 단독으로 문자가 된 경우이고, 회의자와 형성자는 둘 이상의 자소가 문자 구성요소로서 결합한 형태이다. 이중 회의자는 대등한 의미 비중을 가지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소를 운용한 것이고, 형성자는 의미범주(semantic category)를 나타내기 위한 자소(‘義符’)를 소리범주(phonetic category)를 나타내는 자소(‘聲符’)와 결합시킨 것인데, 형성자에 운용된 자소의 의미 비중은 회의자를 구성하는 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sup>39)</sup>

### 2) 依存運用

자소의 ‘依存運用’은, 자립운용과 달리 개념 표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자소와 결합시켜야 하는 자소의 운용 방식을 가리킨다. 전술의 상징자소와 변이자소가 의존운용 되는 자소들인데, 이들 자소는 단독으로 직접 문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자소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당 문자의 표의에 간여할 수 있다. 즉, 의존운용되는 자소는 합체자의 구성요소로서만 자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표의의 기능과 능력에 있어서는 회의자 및 형성자에 자립운용되는 자소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39) 표의의 자소가 다른 자소와 결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모든 표의 자소들이 조자 당시의 원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劉志基, 1995:40), 이는 해당 문자의 사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관련 의미가 확대 적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 2. 자소의 활용

표의문자라 하더라도 임의의 부호로 서사경계 내의 발음정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한자에서도 발음정보를 가진 임의의 자소로 형태소 또는 단어의 발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소의 활용’은 이와 같이 자소목록에서 임의의 자소를 선택하여 형태소 또는 단어의 발음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기능상 변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활용’은<sup>40)</sup> 곧 자소의 기능을 표의에서 표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발음 표시의 정도에 있어서는 활용된 자소와 해당 형태소 또는 단어를 나타내는 문자의 발음이 일치할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다.

자소의 활용에 있어서도 활용상 독립적 문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자소와의 자유로운 결합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自立活用’과 ‘依存活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은 몇 개의 하위 부류를 포함한다.

### 1) 自立活用

‘自立活用’은 자소를 단독의 문자 형태로 ‘활용’하여 여기에 포함된 발음정보를 통해 개념을 표시하거나, 造字 과정에서 다른 부호와 결합시켜 새로 만들어지는 문자의 발음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활용은 ‘用字活用’과 ‘造字活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用字活用’은 음운 차용(phonetic borrowing)의 원리를 이용한 자소의 활용 방식을 뜻한다. 이것은 한자 자소가 가진 표의의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음운 표기를 위해 同音의 자소를 빌어 개념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다음의 ‘조

40) ‘활용’은 언어학에서 ‘원래의 속성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기술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변하는 말이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여(『표준국어대사전』) 이를 ‘끝바꿈’·‘씨끝바꿈’·‘어미변화’ 등으로 달리 칭하기도 한다. 또한 원래의 품사가 특정의 언어적 환경에 의해 다른 의미나 성질의 품사로 바뀌어 사용되는 것도 품사의 ‘활용’이라 칭하는데, 품사의 활용에서의 ‘활용’은 하나의 동일한 단어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품사적 성질을 가지는, 즉 원래의 성질과 다른 성질의 단어로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활용’은 ‘속성이나 성질이 변화하다’ 혹은 ‘변용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개념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조자에 있어서 자소를 본래의 기능인 표의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음을 위해 자소를 변용하는 것을 ‘활용’이라 칭하였다.

자활용'이 음운적 요소를 반영한 임의의 자소가 다른 자소와의 결합을 통해 표음의 기능을 담당케 하는 것과는 달리, 용자활용은 활용되는 자소 자체가 단독의 문자가 되어 발음만을 나타냄으로써 다른 형태소나 단어와의 변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은 여타의 음소문자와 달리 하나의 문자 내에 은폐된 중국어 음절에 대한 제한적 음운표기이지만, 그럼에도 그 궁극적 목적은 바로 표음인 것이다. 따라서 발음정보를 나타내는 자소는 일종의 상징이라<sup>41)</sup> 할 수 있다. 용자활용에 속하는 것으로는 假借가<sup>42)</sup> 있다. 여기에서의 가치는 '本無其字의 가차'를 지칭하는데<sup>43)</sup>, 이것은 일종의 수수께끼 그림 방식(rebus transfer)의 한 종류로서, 표의 자소의 운용을 통한 개념 표시의 한계로 인하여 원래 표의 기능을 담당하는 자소를 소리를 통해 의미를 유추하도록 변용한 활용 방식이다.<sup>44)</sup>

- 41) 음성언어에서 말을 상징으로 보는 것과 같이, 문자에서의 상징은 형체라 할 수 있다. 표의에 운용되는 자소는 형체와 사물 간에 일정 정도의 관계가 있지만, 용자활용에 사용된 자소는 형체와 사물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음성정보만을 나타내므로 일종의 상징인 것이다.
- 42) 가차는 적어도 형성의 방식보다 먼저 고안된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형성자의 증가 이전에도 단독의 부호가 가차된 예가 매우 많고, 또 形義가 전혀 다른 문자로도 발음함으로써 다른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원리의 발견이 선행된 후 음의합성의 방식이 고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3) '本有其字의 가차'인 通假는 용자활용 원리의 확대 응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의 방식과 원리는 가차와 완전히 같으나 차이점이 있다면, 가차는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문자가 없을 때 부득이 기존 문자를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통가는 해당 글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조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음운상 유사성이 있는 문자를 임시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용자 활용의 확대 및 응용은 한자가 표의의 기능에서 이미 표음의 기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 44) 용자활용은 단독의 부호를 활용하는 것에서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체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때 하나의 부호로 구성된 문자의 가차와 두 개 이상의 부호가 결합된 문자의 가차는 등가이다. 즉, 모두 한 음절의 음성정보 표기에 간여하므로 결합된 부호의 수는 음성정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여럿의 부호가 결합된 부호를 활용해 해당 음절의 음성정보를 표시하더라도 표시된 음성정보는 단지 한 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용자활용이 응용되고 확대된 합체자로서의 가차는 기본단위가 곧 최소단위로서 하나의 음절경계를 이루며, 한 문자의 음운을 표시하면서 다른 문자와의 음운변별을 통한 의미변별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가차된 문자는 독체자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부호가 결합된 합체자 역시 하나의 자소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의 용자활용에서는 자소뿐만 아니라 자소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문자가 활용의 대상이어서, 용자활용에서의 자소목록은 앞서 기술한 순수기호자소·상형자소·기호첨가자소·변형자소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모든 한자



둘째, ‘造字 활용’은 조자에 간여하면서 해당 문자의 발음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자소를 형태 구성요소의 하나로 결합시키는 자소의 활용 방식이다. 조자활용은 육서 중 음의합성법(phonetic compounding)을 적용한 形聲의 원리 및 방식이기도 한데, 활용의 양상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원래 표의의 자소를 표음의 자소로 ‘활용’해 기존 문자의 발음정보를 표시하는 활용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갑골문 ‘晶(晶:佚506)’은 ‘별’을 나타내는 상형자였으나, 나중에 발음정보를 나타내는 ‘生(生:後上26·6)’을 부가하여 ‘星(星:前7·26·3)’이란 형성자로 그 구조가 변화하였다. 이때의 ‘生’은 원래 ‘식물의 성장’을 의미하는 표의의 자소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정보를 나타내는 표음의 자소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활용되는 자소는 이를 포함하는 문자의 의미와 무관하게 오로지 발음만을 나타내는 자소로 활용되었고, 그 결과 기존의 상형 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형성 구조의 문자를 ‘조자’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표의의 자소에 표음의 기능을 가진 자소를 조자 시점에서 동시에 결합시키는 활용 방식이다. 이 활용은 자립활용 중 음운 차용의 원리를 착안한 인종이 조자상 자소가 표의 기능과 함께 표음 기능을 동시에 발휘케 하였던 조자 의지 반영의 결과인 것이다. 후대로 오면서 생겨난 형성자의 상당수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sup>45)</sup>, 이 활용으로 생성된 형성자의 표의의 자소는 대략적인 의미범주만 나타내고 오히려 표음의 자소가 음성적 요소로 다른 문자와의 변별을 추구하므로 표시의 비중은 표음의 자소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소의 활용은 한자 스스로가 제한적으로나마 표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조자상 표의 자소의 운용상 한계에서 벗어나 충분한 문자량의 확보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조자 원리가 되었다.

## 2) 依存活用

‘依存活用’은 문자의 형태 중 일부만으로 발음정보를 표시하는 활용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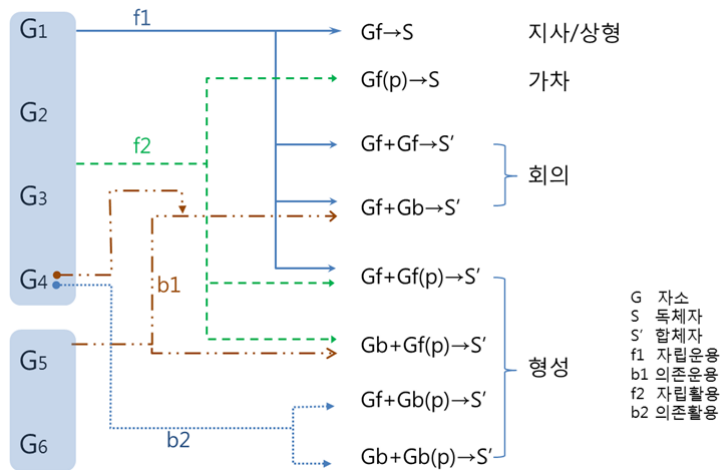
---

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단독의 부호로서의 자소를 주요 고찰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합제자가 자소의 지위로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자세히 논하도록 한다.

45) ‘木’·‘金’ 등을 의미요소로 취하고 있는 사물 관련 형성자들의 상당수가 이 예에 속한다.

이때 발음정보를 나타내는 문자의 형태는 불완전하여 단독의 문자로 사용되지 못한다. 『說文』에 등장하는 형성자 중 ‘省聲’으로 분석한 聲符가 이 예에 속한다. 비록 한자 중에서 의존활용의 예가 많지는 않지만, 엄연히 자립활용의 상대적인 활용 방식으로서, 중국 문자체계 내의 독특한 표음방식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실제로 세계 문자 발전사를 살펴볼 때, 상형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표의문자가 음소문자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형태를 간략화 한 표음의 부호가 점차로 음소단위까지 적는 표음의 최소단위로서의 자소로 변화되었던 사례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한자에서 이러한 현상이 비록 소수에 불과하고, 또 省聲 자체의 타당성 또한 의심 받고 있지만(何九盈1991, 吳東平2001, 劉越2011), 표의에서 표음으로의 문자 유형 변화의 동인과 과정을 추정하고 문자 일반론 상의 변화 규율을 검증할 수 있는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한자 자소의 의존활용 사례는 문자 발전사 연구의 관점에서는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각종 운용과 활용, 그리고 이를 통해 생성된 한자 조자상의 자소의 결합 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한자 자소의 운용 및 활용과 한자의 조자 유형

앞 〈그림 2〉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자소의 각종 운용 및 활용에 의해 구현되는 조자 유형은 육서(전주 제외)보다 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여덟 가지 운용 및 활용, 그리고 자소 결합 유형은 고대 언중에 의한 한자 조자가 실제로는 주로 이 여덟 가지 자소 결합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 이에 상응하는 여덟 가지 한자 형태 구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한자 자소의 운용·활용에 근거한 한자 형태 구조 분석은 언중들의 문자언어 사용의 실제에 더욱 잘 부합할 수 있는 구조 분석법 및 관련 이론의 정립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V. 자소의 분류와 명명

전술에서는 한자의 각 자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어 자소체계와 자소목록을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 및 활용되어 한자의 구성요소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앞 3·4장의 내용을 통해 유형화 한 자소의 형성 방식과 운용·활용 형태에 근거하여 각종 자소를 명명 및 정의하고, 전술의 내용을 종합하여 각 자소의 기능과 속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 1. 표의·표음 기능에 따른 분류

표의 또는 표음은 문자의 본질적 기능이다. 문자는 이를 통해 궁극적 목적인 개념의 표시와 문자 상호 간의 변별을 실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한자는 표의와 표음의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자소를 운용 또는 활용하였다. 이에 한자의 자소는 가장 먼저 표의 또는 표음의 기능에 근거하여 ‘基本字素’와 ‘活用字素’로 나눌 수 있다. 기본자소와 활용자소는 한자 자소 분류의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분류이다. 왜냐하면 한자 본연의 문자적 기능이 자소를 통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1) 基本字素

‘基本字素(Fundamental Grapheme)’는 한자 본연의 문자적 성질인 의미 표시에 간여하는 한자 구성의 최소단위로서의 자소를 가리킨다. 기본자소는 말 그대로 한자 조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개념의 순수기호화, 객관사물의 형상화, 기호의 첨가, 원형의 조작, 형태의 상징화, 형태의 변이 등에 의해 생성되어 자소목록을 가지면서 한자라는 중국어의 서사체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조자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본자소는 앞의 여섯 가지 방식에 의해 생성된 순수 기호자소·상형자소·기호첨가자소·변형자소·상징자소·변이자소를 운용하여 단독으로 문자가 되거나 다른 자소와의 결합을 통해 표의에 적극 간여하는 한자 자소의 근간이다. 그리고 기본자소는 표시 대상의 측면에 있어 표음을 목적으로 하는 ‘활용자소’(아래 참조)의 상대적 개념임과 동시에, 자소가 음운표시를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언어·문자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기본적인 자소이다.

### 2) 活用字素

‘活用字素(Conjugative Grapheme)’는 한자의 발음정보를 표시하는 자소를 의미한다. 음소문자는 발음을 적는 것이 문자의 본질적 기능이지만, 표의문자에 있어서는 표음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비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타의 세계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자는 궁극적으로 표의에서 표음으로 그 속성이나 기능이 변화하였고, 한자 역시 비록 완전한 음소화를 실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한된 방식으로나마 기존의 문자 형태를 이용해 표음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소의 변용을 ‘활용’이라 정의하였는데, 활용자소는 바로 활용에 의해 표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소인 것이다.

활용자소는 활용의 두 유형인 용자활용과 조자활용에 따라 ‘借音字素’와 ‘表音字素’의 두 가지 하위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借音字素는 용자활용에 활용되는 자소로서, 단독의 자소 또는 문자를 빌어 형태소나 단어를 나타내는 자소이다. 둘째, 表音字素는 조자활용에 활용되는 자소로서, 해당 문자의 발음정보를 표시하는 자소이다. 표음자소는 형성자 구성의 일원으로 표의의 자소와 결합함으로써 형성자를 조자하여 표의의 자소와 명확한 역할 분담을 이루고 있다.

## 2. 독립적 운용·활용 여부에 따른 분류

운용 및 활용되는 자소는 단독으로 문자가 되어 표의 또는 표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로운 결합 능력을 가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自立字素’와 ‘依存字素’로 나눌 수 있다.<sup>46)</sup> 자소 간의 각종 결합에 참여하는 각 자소들의 실제 조자상 운용 및 활용의 여러 형태를 앞 〈그림2〉를 참고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自立字素

‘自立字素(Free Grapheme)’는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운용 또는 활용이 가능한 자소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독립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의 문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sup>47)</sup>, 다른 자소와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해 표의 또는 표음의 역할로 조자에 간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립자소는 운용 및 활용에 따라 다시 ‘自立運用字素’와 ‘自立活用字素’로 세분할 수 있다.

‘自立運用字素’는 자립운용(f1)이 가능한 자소로서, 문자의 표의에 직접적 역할을 하는 자소이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자가 되어[Gf→S] 개념을 나타내거나, 자립운용자소 간의 결합[Gf+Gf→S’], 의존운용자소와의 결합[Gf+Gb→S’], 그리고 자립활용자소와의 결합[Gf+Gf(p)→S’]에 있어 표의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립운용자소가 될 수 있는 자소로는 기호자소·상형자소·기호첨가자소·변형자소가 있다.

‘自立活用字素’는 자립활용(f2)이 가능한 자소로서, 문자의 발음정보를 표시하는 자소이다. 이것은 단독으로 활용되어 하나의 문자로써[Gf(p)→S’] 음운변별을 통한 개념을 표시하거나, 자립운용자소와의 결합[Gf+Gf(p)→S’], 의존운용자소와의 결합[Gb+Gf(p)→S’]을 통해 문자의 발음을 대표한다. 자립활용자소로 활용될 수 있

46) 운용과 활용의 독립성 여부는 표의나 표음을 위해 부가되는 자소가 특정의 서사 환경에서는 지정된 형태의 자소만을 써야 한다는 조자상 제약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훗날 특정 자소의 기호화 및 정형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7) 기존의 ‘成字字素’는 문자가 될 수 있는 자소와 그렇지 못한 자소의 단편적인 구분에 불과하다. 본고에서는 문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결합관계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되는 성분을 자립자소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실제 운용 및 활용, 그리고 다른 자소와의 결합 관계에 대해 함께 분석하였다.

는 자소로는 기본자소 중의 순수기호자소·상형자소·기호첨가자소·변형자소인데, 단 변형자소 중 ‘省聲’에 관련된 것은 예외이다.

## 2) 依存字素

‘依存字素(Bound Grapheme)’는 독립적으로 문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자소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표의 또는 표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소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의존’은 ‘다른 성분과의 결합(bound)’이라는 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의존자소 역시 운용 및 활용에 따라 ‘依存運用字素’와 ‘依存活用字素’로 세분할 수 있다.

‘依存運用字素’는 字義 형성에 적극적으로 간여하면서도 의존운용만 가능하여 그 형태 단독으로는 문자가 되지 못하는 자소를 가리킨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상징자소와 변이자소가 있으며, 전통문자학에서의 ‘省形’에 해당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들은 표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으나 정도의 차이는 있다. 즉, 자립운용자소와의 결합[Gf+Gb→S']에 있어서는 자립운용자소와 대등한 표의 능력을 가지지만, 자립활용자소의 결합[Gb+Gf(p)→S']에 있어서는 대략적인 의미범주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sup>48)</sup>

‘依存活用字素’는 다른 자소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비로소 표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소를 의미한다. 의존활용자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형성자에서의 ‘省聲’에 이용된 것들로서, 이들은 형성자의 聲符로만 사용되었다[Gf+Gb(p)→S', Gb+Gb(p)→S']. 의존활용자소는 의존운용자소인 상징자소·변이자소와 비교해 볼 때 형체 형성 방식은 일정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용례가 충분치 않아 의미 및 발음의 표시와 관련한 유형화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48) 알파벳이나 한글과 같은 음소문자에서의 자소는 모두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그러나 형태소 또는 단어를 표시하는 한자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자소가 둘 이상일 경우 이들 자소는 반드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중점이 따로 있을 수 있다.

## VI. 結語

한자라는 중국어의 서사체계는 고대 언중들의 의식 발전과 사회 생산 증가에 따른 문자적 수요에 의해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세계 여타의 문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에 걸쳐 개별 부호들이 하나하나 축적된 결과의 총아이다. 따라서 문자 구성요소로서의 최소단위, 즉 자소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개별 부호의 분류에 있어서도 이러한 한자 변화 역사의 전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한자는 무엇보다 사물의 형상을 통해 개념을 표시하는 상형문자를 근간으로 해왔고, 각 부호 간 다양한 결합의 궁극적 목적 역시 표의였다. 또한 한자는 제한된 부호 사용의 한계성과 부호의 무한정 증가가 야기할 수 있는 서사적 비경제성의 극복을 위해 기존의 표의 중심의 문자 기능이 표음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한자 역시 초기 상형문자의 표음화 경향이라는 세계 문자의 보편적 변화·발전 법칙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 근거한 자소의 분류 및 관련 연구는, 한자 형태 구조 변화 역사를 보다 세밀하고도 실증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문자체계 발전의 보편성에 입각한 한자 역사의 기술을 가능케 한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조건과 가능성에 근거하여 자소의 분류와 명명을 시도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한자의 자소를 운용 및 활용의 측면에서 기본자소와 활용자소, 자립자소와 의존자소 등으로 나누고, 이들 자소의 표의·표음에 따른 기능적 특징과 결합 능력 및 문자 형성 유형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특히 자소의 형성 방식에 따른 자소 분류, 운용 및 활용에 따른 자소의 분류는 기존의 자소 분류 관련 논의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들은 한자 조자 및 변화 과정의 중요한 일면이고, 또 원래의 표의적 자소를 표음의 자소 또는 문자로 활용한 사례는 한자 내에서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자소 분류 및 연구에 있어 중요한 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이밖에 자소 분류 및 연구와 관련한 일련의 용어들을 제시하고 정의하였다. 이로써 본고가 향후 한자 자소 본연의 연구, 한자 구조분석 연구뿐만 아니라, 자소 일반론의 이론 정립과 연구법 수립에 일조하고, 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바이다.

### 【參考文獻】

- 김방한,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1992.
- 이정민·배영남, 『언어학사전』, 박영사, 1993.
- 孔祥卿·史建偉·孫易, 『漢字學通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
- 唐 蘭, 『中國文字學』, 上海古籍出版社, 2001.
- 吳東平, 「『說文解字』中的省聲研究」, 『中南民族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1年 第4期, 2001.
- 劉 越, 「『說文』省聲研究」, 『語文學刊』 2011年 第10期, 2011.
- 劉志基, 「試論漢字表意字素的意義變異」,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5年 第2期, 1995.
- 李圃(李玲璞), 『說字素』, 『語文研究』, 1993年 第1期, 1993.
- 李 圃, 『甲骨文字學』, 學林出版社, 1995.
- 何九盈, 「『說文』省聲研究」, 『語文研究』, 1991年 第4期, 1991.
- Dürscheid, 『문자언어학』, 김종수 譯, 유료, 2007.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中文提要】

作為漢語的基本書寫形式的漢字體系，是由於社會生產力的增長和文字使用需求的日益增多而逐漸形成的。構成漢字的各種符號以‘概念的純符號化’、‘客觀事物的形象化’、‘符號的附加’、‘原形的改造’、‘形體的象徵化’、‘形體的變異’等方式形成了漢字的字素體系。漢字字素是漢字的最小結構單位，本文對此進行了分類和定義，還提出了一些有關概念與術語。本文的字素分類與定義大體如下：

漢字字素通過‘運用’和‘活用’的方式來分別發揮表意或表音的作用，根據其運用和活用的功能將漢字字素可分為‘基本字素’與‘活用字素’等兩類。基本字素是漢字造字的最少結構成分，具有形、音、義，主要表示該字的意義，而活用字素是在基本字素的基礎上根據字音的相同或相近而活用為起表音作用的字素。漢字字素還根據獨立成字或與其他造字成分自由結合的與否，可分為‘自立



字素'與'依存字素'兩類。

筆者認爲漢字形體結構研究要更加深刻，一定要深識字素研究的重要性。因此筆者還希望，字素研究應附合於漢字生成與演變的歷史規律的條件之下，以本文所提出的字素定義、分類及研究方法論等爲契機，在漢字研究方面的有關學人堅持關注與重視字素的態度而對此繼續進行更爲細緻的研究與探討。

### 【主題語】

漢字(Chinese Character), 字素(Grapheme), 基本字素(Fundamental Grapheme), 運用(Semantical Use), 活用(Phonetical Use)

투고일: 2013. 10. 15 / 심사일: 2013.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3. 11. 10